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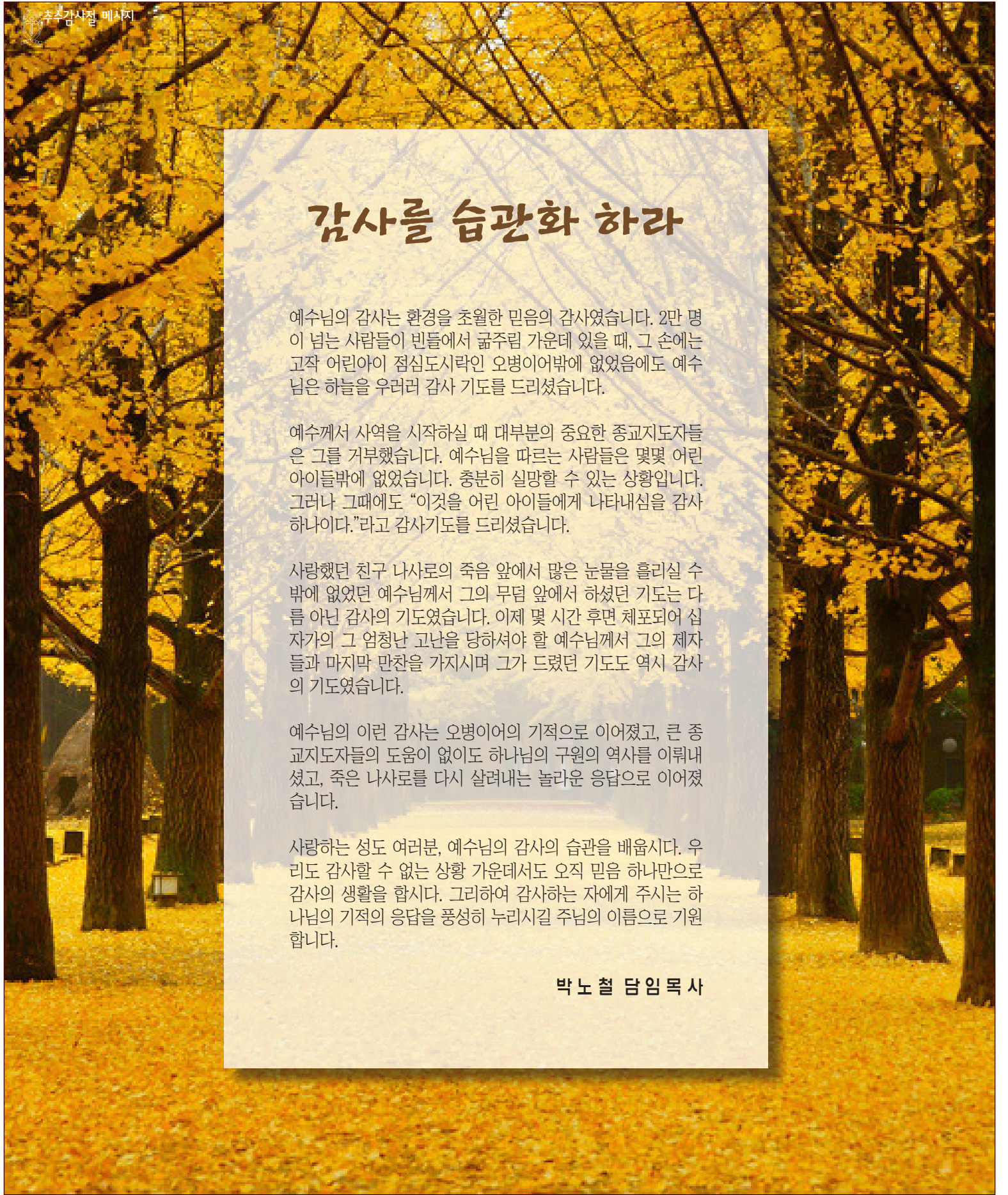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감사를 습관화 하라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손에는 고작 어린아이 점심도시락인 오병이어밖에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의 중요한 종교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몇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하나이다.”라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기도는 다름 아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그가 드렸던 기도도 역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졌고, 큰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을 배우시다.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박노철 담임 목사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에배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11월 22일,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 / 장로 임직식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양춘경 장로)의 절기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

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주, 11월 22일(주)은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며 장로 임직식이 거행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5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6일(월)~21일(토), 강사: 박노철 목사

지난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많은 결실을 맺었다.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VIP 방문은 351명이며 결신은 172명이다. 또한 24시간 자율기도에는 5,161명이 참석하였으며 릴레이 성경읽기는 22독을 진행 중이다.(11월 11일(수)기준)

특별히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새벽 5시에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롬 8:15)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중인 11월 20일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대신한다.



사랑부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

오늘, 오후 2시 40분 - 101호에서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장: 강성은 집사)는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오후 오후 2시 40분,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호산나대학 졸업생들

권정석 학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합격

우리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 2학년 권정석(23세, 지적장애 3급)군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법고시와 같이 어렵다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요양보호사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고 초기에는 일정시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제로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 하지만 이번 권정석 군의 시험합격으로 호산나대학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되고자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권정석 군은 “한 번에 합격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조유현 교수님(노인케어학과 담임교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의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호산나대학의 교육목표 아래 권정석 군의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92)

(문 192)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인가요?

(답) 요한계시록1:4-5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땅의 일곱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 성부와 성자가 언급되고 4절에서 성령을 말씀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별(1:16) 일곱 금 촛대(1:12) 어린양의 일곱 눈(5:6) 일곱 천사(8:2) 또는 일곱 교회(1:4)와 연관시키려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인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한 영이 아닌 일곱 영으로 표현하였을까요? 성령을 7가지로 계시된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i) 곧 지혜(iii)와 총명의 영(iii)이요 모략(iv)과 재능의 영(v)이요 지식(vi)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vii)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성령이 7가지로 메시아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 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3)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슁 3:9)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새긴 일곱 눈으로 대표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찰하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느니라”(슁4:10) 이것은 BC 516년에 오게 될 제 2성전의 헌당을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일곱 영은 각각 1:4에서 뿐 아니라 3:1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그리고 5:6에서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위(位)는 단일하시나 그의 속성과 권능은 완전하시다는 뜻으로 일곱 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사를 부여하시는 성령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상징적 표현이 많은 요한 계시록에서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비둘기(마3:16) 또는 불의 혀(행2:3)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엘리야의 기도



양춘경 장로
(임마누엘 찬양
대장)

2015년도 추수감사절에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성도님들과 함께 임마누엘 찬양대가 감사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2015년 한 해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감사와 찬양에 성도님들께서 함께하셔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며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회 구제행사를 마치고

빈약한 자를 구제하라



김형상 집사
(스데반회 회계)

2015년 연초 스테반회 임원들은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서울교회 3대 사명중 하나인 구제사업을 스테반회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사업계획으로 편성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구제활동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겨울담요를 교회 바자 때 미리 구입해 놓았습니다.

교회 인근의 생활환경과 거주실태를 분석한 결과 낡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대치2동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 대치2동 주민자치센터에 취지를 설명한 후 대상자를 선별하여 줄 것을 요청,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최하위계층에서 선별된 20명의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유문건 목사님의 말씀증거와 축도속에 우리는 3-5명씩 7개팀으로 나눠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골목골목을 누비며 대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문패도 호수도 없는 집에 살고 있어서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자욱한 어두컴컴한 지하 단칸방에 왼손과 오른발에 깃스를 한 채로 50대 초반 쯤 보이는 한 남자가 헬썹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였습니다. 더러운 방바닥과 한 평도 안돼 보이는 비좁은 공간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질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나환자의 피고름을 빨며 치료해 주었다는 손양원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50만원을 차용하여 병원에 겨우 다녀왔다는 그는 인근교회에 간헐적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도 연립주택 지하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한창 일할 나이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 일도 못하고 방안에서만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후반의 할머니는 단독주택 지하 단칸

방에 20대 후반의 딸과 거주하며 딸이 일해서 벌여오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해 교회에 출석했으나 지금은 망연자실한 상태여서 둘 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대상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건강회복과 물질의 축복과 교회출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중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우리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찾아준 서울교회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 그중에서도 강남의 중심 대치동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1 3:17)는 말씀이 질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왜 서울교회에 빈약한 자를 구제하라고 3대 사명의 하나로 주셨는지를 새삼 되새기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햇볕 되어 빛 되게 하소서

이순례 권사
(살렘권사회장)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을 허락하시어
오곡백과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쓸데 없는 자를
전도의 사명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찬양의 사명자로
부르심은
메마른 심령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절망 속에
통회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상처입은 마음에 치유의 손을 내미신
주님!

서울교회 사명자들의
외치는 이 소리가
햇볕 되어 빛 되게 하소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부 - 천사들의 음악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봉선 권사
(사랑부 차장)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애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사랑부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 아이들은 과연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어 이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걱정이 부끄러우리 만큼 사회 각 계층에서 잘 적응하고, 그 처소의 일원으로 각자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이들을 통하여 서울교회 사랑부의 좋은 이미지가 소문나서 사랑부가 발전하고 부흥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천사들의 음악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밝게 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보고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밝게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저 음악회에 참석하시어 세상의 화려한 음악회 보단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만의 최대치로 변화 발전한 모습에 박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는 무대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악회에 참여하는 사랑부 모든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드립니다.



11월29일(주일)부터 대림절 시작

그리스도의 계절, 대림절이 11월 29일(주일)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의 네번째 주일을 대림절 제1주일로 하고, 성탄절까지의 준비기간을 말한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서울교회가 되기 바란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추수감사절 찬양으로 임마누엘찬양대(대장:양춘경 장모)의 오라토리오 "엘리아(F.Mendelssohn작곡)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엘리아"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엘리아의 삶과 신앙을 노래한 멘델스존의 역작으로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더불어 세계 3대 오라토리오중의 하나이다.

류충기 집사의 지휘로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성도, 피아니스트 양경실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담당하고, 곡중 독창은 엘리아에 김승환 성도, 오바다에 곽아론 성도, 최상아 성도가 맡는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5일(주) 할렐루야교회 설립 35주년 감사예배 축사를 한다. 16일(월) 한국개혁신학회 임원회와 간담회, 17일(화) 연세대 원로동문초청 행사 19일(목) 한국예비역군인연합회(여호수아회) 추수감사예배설교, 20일(금) Save N. K. 이사회, 21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개회예배 축도 및 올해의 신학자상 시상을 한다.

■ 공연: 15교구 신모란 집사, 번안오페라(노처녀와 노숙자), 세종문화회관M씨어터,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 금주의 식사 제공 : 한중표 집사 박명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이용욱 집사 차인화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금주의 떡 제공 : 제2권사회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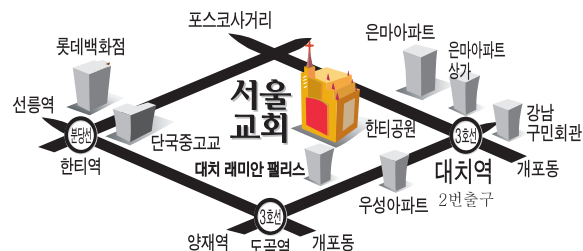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2. 새생명축제에 초대하기로 작정하였던 전도 대상자(VIP)들을 2015 사명자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3. 오는 주일에 있는 교회설립감사와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